



방사능 테러에는 이렇게 대응한다

철저한 예방으로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한다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내부 사보타지, 방사능 오염 폭탄(dirty bomb)에 의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며, 방사능의 특성상 테러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핵시설 공격에 대비하여
 -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의 경계 강화(주변 상공의 비행 금지 조치 등)
- 핵물질 탈취에 대비하여
 - 국제적 핵물질 유통 감시 강화(미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 협조 체제 유지)
 - 내부 사보타지에 의한 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
- 방사능을 이용한 더러운 폭탄 제조에 대비하여
 - 방사성동위원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의 관리 체계 강화
 - 전국적인 방사능 오염 조기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방사능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 강화

방사능 테러 신고 체계

- 과학기술부
 - (주간)원자력방재과 02-503-0358(<http://www.most.go.kr>)
 - 방사선안전과 02-503-7654
 - (야간)당직실 02-503-7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사고보고 전용 전화 080-004-4949(<http://www.kins.rekr>)
 - 방사선방호실 042-868-0057
 - 당직실(야간) 042-868-0402
- 119 소방대: 국번없이 119



비상 사태 극복은 질서와 협력에서부터!

테러 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 나부터 솔선해서 질서를 지키며
- 정부의 지휘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합니다.

테러 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 병·의원은

- 서둘러 테러 피해자의 치료에 나섭니다.
- 이물러약품과 병상 시설 등의 확보에 협력합니다.